

지역 소식통

정읍 평생학습관, 상반기 수강생 195명 모집

정읍시 평생학습관은 정읍시민들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상반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자격증 준비과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인문 교양 프로그램으로 총 3개 과정 11개 프로그램이다.

자격증 준비과정은 ▲인지능력(이차예방) 전문가 ▲타로와 심리상담 ▲캘리그래피 지도사 ▲우리 몸 바른 체형 지도사 ▲신박한 정리수납 5개 프로그램이다.

또 문화예술 과정은 ▲색연필드로잉 ▲생활 목공프로그램이며, 인문 교양과정은 ▲생활영어 ▲이동·청소년 심리진단과 이해 ▲생활악호 교실 ▲드론 이해와 실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별 15~20명씩 총 195명으로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순으로 마감한다. 수강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평생학습관 ☎ 063-537-1578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실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는 15일 농업경영력을 강화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30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성수산물 조남현 대표가 "급변하는 시대에 농업 소득 높이기", "대도시 인근 농업의 강점 강화하기" 등을 교육하며 농업정책과 농산물 시장 변화에 맞춰 농업경영의 필요성과 남다른 전략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내 농장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해 강소농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경영 개선사항과 목표에 대한 실천사례를 통해 신규 강소농에게 사업취지와 농업경영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현재의 어려운 농업여건에서도 성공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귀농 · 귀촌 원스톱 지원 팔 걷어

## 정읍시, 종합지원센터 개관 '본격 운영'

정읍시 귀농·귀촌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15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과 정보교류의 공간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거점 공간이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가족 실습농장 운영을 비롯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

특히 귀농·귀촌학교와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귀농인 선도 농가 실습농장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도시

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구룡동(구룡길 237번지) 일원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단지 내에 연면적 261.54㎡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1년 3월에 착공을 시작해 최근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8억원(도비 2억7,500만원 시비 5억2,500만원)이 투입됐다.

센터 1층에는 귀농·귀촌 상담을 위한 사무실과 귀농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육을 제공할 교육장 시설이 들어섰다.

2층에는 단기체류자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3실과 귀농·귀촌인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다.

# 어머니 약손... 치유문화도시

## 고창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고창군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문화도시 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고창문화관광재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고창군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상황,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창군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었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비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받기 위해 군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지만,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1년 연장하며 제도약을 꿈꾸고 있다.

고창군수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제4차 문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지역경제살리기 67억원 긴급 투입

## 전통시장 · 소상공인 집중 지원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67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대분야(지역화폐, 전통시장 관리, 소상공인지원, 에너지사업)에 67억원을 집중지원한다.

먼저, 주민들과 지역상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고창사랑상품권이 올해 133억원 가량 발행된다.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면 발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상품권 환전율이 평균 90%에 이르는 만큼, 외지로 유출됐던 지역자금이 순환 효과가 특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개인이 구입할 경

우 상품권 구입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3억5458만원)도 추진된다. 고창관내 6개 시장(고창읍, 상하, 해리, 무장, 대산, 흥덕)의 시설 개보수, 장보기도우미,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방역 소독, 문화행사 등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시름이 깊어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마련된다. 군은 4억726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 사업비를 편성했다.

운전자금 융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물품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으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한다.

운전자금 융자는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1년 거치 2년간 상환, 이자 4% 이내로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40억원)도 관심사다. 고창, 고수, 흥덕, 신림 지역의 주택 38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시설을 설치해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창군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시행을 통해 군민과 지역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농림부 주관 '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 희망 농가 모집

정읍시가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축산농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행정의 각종 악취 저감 사업과 지도·단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인식개

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 모집에 나섰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농가당 최대 5억원의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청렴리더 34명 선정 청렴실천 선언식 개최

부안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문화를 선도할 관공·읍면 공무원 청렴리더 34명을 선정하고 청렴리더 선언문 낭독 등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기관내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을 증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의미와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청렴리더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에 앞장서고 부서의 청렴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청렴도 관련 정보를 현장직원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부안군 5無(감질관행·불친절·부당지시·금품수수·향응접대) 운동 등 지속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시행해 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 스스로 청렴한 태도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청렴리더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